

# “전남 국립의대, 통합의대 무산되면 공모로 추천”

## 용역사, 설립방식별 추진일정 발표

양 대학 28일까지 합의 제출 요청  
불발시 11월 25일 정부 추천 확정  
“의평원 예비인증·정원 배정 고려”

통합의대와 공모 방식 등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식과 관련, 목포대와 순천대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학이 정부에 추천된다. 통합의대 합의는 오는 28일, 공모 추천은 11월25일로 데드라인이 각각 확정됐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2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별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목포대와 순천대 측에 오는 28일까지 통합합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학이 28일까지 통합에 합의할 경우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설립방식을 결정하고, 양 대학이 함께 제출한 ‘통합의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설립 정부 추천대학 용역 두트랙 추진일정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계획안’에 대해 적격성 평가를 진행한 후 전남도 추천안으로 ‘통합의대’ 안을 정부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 대학 합의가 불발될 경우 29일 양 대학과 평가기준 논의를 위한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 제안서 공모 설명회 후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대학을 선정해 25일 정부에 제출할 예

정이다. 다만 공모 진행 중에도 두 트랙 방식은 유지하되, 공모가 마감되는 11월 20일 이전까지 양 대학이 협의하에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서 통합의대 방식

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합의서에는 양 대학의 통합 목적 및 원칙, 통합 협의체 구성 및 통합 시점, 의대 신설을 위한 계획 등을 담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길 파트너는 “지난달 12일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양 대학에서도 통합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26년 의대 개교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늦어도 정부에 11월25일까지 추천 대학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용역은 추진일정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6년 의대 개교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평가 신청 마감일인 11월29일 이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한다. 인증 평가 이후 2025년 3월 의대 신설 확정 및 정원 배정, 4월 대학입학전형계획 반영·공표가 마무리돼야 2026년 3월 의대 개교가 가능해진다.

한편 용역사 측은 지난달 12일 ‘1대학 2병원 신설’과 ‘통합 전제 통합의대’를 두 트랙으로 제시하고, 전남 지역 첫 의대 추천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지현 기자

## ‘KIA 팬 뜨거운 응원 열기...’

1면서 계속 김지현(33)씨도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악전후가 겹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경기가 재개됐을 때는 반드시 제 컨디션으로 정규시즌 1위의 위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역전을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22일에도 광주지역에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서스펜디드 경기와 2차전 모두 23일로 미뤄져 치러지게 됐다.

오후 2시께 전해진 우천 연기사식에 광주 시내의 숙박업소에는 예약 취소·변경과 숙박 연장 문의가 빗발쳤다.

서구의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 규정상 당일 예약 취소 및 변경이 어려워 취소·변경 사례는 없었지만, 경기 순연이 선언된

후 23일까지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미 광주로 향하던 야구팬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틀었고, 개인 일정 등으로 서스펜디드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된 일부 팬들은 중고거래 앱에 기존 표 가격에 웃돈을 얹어 되팔기도 했다.

목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박경우(56)씨는 “목포는 비가 안 와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광주로 가던 중 우천 취소 소식을 들었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냈는데 허무하다”면서 “어렵게 티켓을 구하게 된 만큼 내일 다시 광주에 와서 타이거즈의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 우승 순간까지 힘차게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5억7천만달러 ‘역대 최고’

올 3분기 기준... 전년비 21.7% ↑  
김·전복 등 세계시장 경쟁력 입증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올해 3분기 기준 5억7523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한 규모로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기간 연도별 수출액은 2021년 3억9350만 달러, 2022년 4억2167만 달러, 2023년 4억7284만 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수출 증가는 전남에서 생산하는

김, 미역, 전복 등 수산물과 쌀, 배, 유자차 등 고품질 농수산물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남산 김은 2억7511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2.2%나 늘었다.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폴란드, 네덜란드, 아랍 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전복은 3273만 달러, 미역은 1822만 달러로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쌀은 2895만 달러, 유자차는 1857만 달러, 배는 818만 달러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신원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 연말까지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QR code and text: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Advertisement for Green Goong Prime Ever 120. Text includes: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